**HI-ARC**

**2020-2 HI-ARC 자율 스터디 활동 보고서**

|  |  |  |  |  |  |  |
| --- | --- | --- | --- | --- | --- | --- |
| 스터디명 | BOOK++ | | | | | |
| 학습일시 | 2020.10.04 | 진행차수 | 2 | 학습시간/장소 | | 1시간/디스코드 |
| 참석자 | 권예빈(서명) | 이주현(서명) | | | 박장성(서명) | |
| (서명) | (서명) | | | (서명) | |
| 구분 | 내용 | | | | | |
| 학습목표 | chapter 4의 find the elements에서 elements들을 찾기 위해 쓰는 두 가지 방법(breadboarding, fat marker sketches)의 차이점을 알아본다.  chapter 1 ~ chapter 5의 단계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모든 shaping 하는 방법들은 chapter 6의 pitch를 쓰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이해한다.  write the pitch의 5개 구성 요소인 problem, appetite, solution, rabbit holes, no-gos를 통해 pitch의 과정을 알아본다. | | | | | |
| 학습 방법  및  학습 내용 | chapter 4에서는 find the elements가 소개되었다.  1, breadboarding, 2, fat marker sketches 이 두 도구를 이용해 적당히 추상적으로 shaping을 하고, 서로 장단점을 비교하는 것이다.  chapter 5 에서는 risks and rabbit holes가 소개되었다.  열심히 shaping을 했지만 결국엔 all it takes is one hole in the concept to derail이라고 한다. 이제는 최대한 de-risk하는 게 목표이다. 이를 위해 pitch를 하기 전에 프로젝트를 전문가한테 보여줘서 기술적으로 실현이 가능한지, 6주 안에 끝낼 수 있을 지를 검증받는다.  chapter 6에서는 write the pitch가 소개되었다.  드디어 private 단계에서 벗어나 프로젝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게끔 boundaries들과 solution을 자세히 설명(spell out)하는 단계이다 pitch는 5가지로 구성된다고 한다.  1. problem - 우리로(shaper) 하여금 이 일을 하게끔 하는 raw idea (즉 문제인식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다.).  2. appetite - 얼마나 시간을 투자할 지와 제한된 시간이 어떻게 solution을 제한하는지  3. solution - 우리가 생각해낸 핵심 요소, solution을 사람들이 이해하게끔 프레젠테이션을 해야한다.  4. rabbit holes -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피하기 위해 생각해보아야 할 solution의 detail  5. no-gos -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들, boundaries와 비슷한 의미인 것 같다.  pitch를 통해 이 product를 본격적으로 betting해도 될지, 시작을 해도 될지를 검증받는다.    Our CTO responds with technical thoughts on the pitch.  이런 식으로 pitch를 하면 CTO 같이 기술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코멘트를 남겨준다고 한다. 이 단계에서는 yes 나 no가 아닌, 건들여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주는 식이라고 한다. (yes나 no는 chapter 7에서 이루어 진다.) | | | | | |
| 활동 후기 | 일단 스터디 방법을 한 번 더 수정을 하기로 했다. shape up의 경우에는 1주일에 세 chapter씩 읽고, 토요일까지 읽으면서 작성한 양식을 단톡방에 제출한 뒤, 서로 제출한 내용을 읽어보면서 질문거리를 생각해 놓는다. 일요일에 디스코드에서 만나서 궁금했던 점을 물어보는 등 채워줄 부분은 서로 채워준다. 이렇게 하면 스터디원들끼리 소통을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2주차의 내용도 굉장히 신선했다. 마치 위계질서가 뚜렷한 기업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방식들로 basecamp에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구나 싶다. 또한 주제를 던져놓고 그냥 추상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이해에 도움되었다고 느꼈다. 예빈님은 그룹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전달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고는 했는데, chapter 4에서 소개된 breadboarding을 참고하면 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주현님 또한 이 책을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읽어봤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만큼 이번 챕터들은 실제 그룹 단위로 프로젝트를 할 때, 참고할 만한 내용들로 가득했다. 필자는 1학년이지만,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이 책을 읽고 있는 중이다.  지식 습득이 아닌 영어 원서를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게 스터디의 목표지만 부가적으로 얻어가는 지식이 많은 것 같다. 이래서 책 선정이 중요한가 싶다. | | | | | |

**유의사항**

* 아래의 유의사항을 모두 지켜주세요. 어길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분량 제한이 있습니다. 1차수 당 3매 이하로 작성해 주세요.
* 공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단순 나열은 지양해 주세요.
* 학습 진행 상황을 알 수 있게 기재해 주세요.
* 기타 공부한 자료는 별첨 자료로 첨부해 주세요.
* 매주 작성한 활동 보고서는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 해 주세요.

(2주 이상 미 제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글자 포인트는 10pt로 작성해주세요.